

청소년 성발달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A Preliminary Study on the Sexual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for Adolescents*

하은혜(Eun-Hye Ha)¹⁾

유미숙(Mee-Sook Yoo)²⁾

조유진(You-Jin Cho)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reliminary study was to test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Sexual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for Adolescents. Subjects were 579 middle school and 504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do. Statistical analyses were by factor analyses, Cronbach's α , χ^2 value and Cramer's V. Construct validity was composed with 10 factors on sexual Development Assess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12 factors for high school students. Reliability of each subscale was high and the item discrimination, χ^2 value and Cramer's V were also meaningful.

Key Words : 청소년(Adolescent), 성(Sexuality), 성발달(Sexual Development), 예비연구(preliminary study).

I. 서 론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넘어가는 발달전환기로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신체적으로나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를 밟아가는 시기라 볼 수 있다. 성숙한 성인으로서 삶을 준비하기 위한 청소년기 주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는 바로 성역할 정체

감을 확립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의 건강한 성(性) 발달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성(性)이란 무엇인가? 한국사회에서 성의 개념을 논할 때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즉, 우리나라 말로는 한마디로 표현되는 성의 영어식 표현이 sexuality, gender, sex, having sex 등 그 의미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우리나라에서 성이라는 추상적 용어로 표현했을

* 본 연구는 2004년도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사업에 의해 수행되었음.

¹⁾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²⁾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³⁾ 숙명여자대학교 · 한서대학교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You-Jin Cho, Department of Child Welfar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E-mail : c-joshua@hanmail.net

때 개념정립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이다(안명옥, 2003).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성의 개념이 불명확한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사회가 오랫동안 성에 대해서 금기시하고 은폐하여 온 역사와도 무관하지 않다. 성의 개념을 명확화 하기 위해 몇 가지 견해를 살펴보자면, 우선 전통적인 개념으로 프로이드를 비롯해 많은 학자들은 인간의 성발달이 유아기 때부터 성에 대한 의식이 본능적으로 생기기 시작해 인간의 성장·발달을 통해 성에 대한 가치, 태도 및 행동을 확립하게 되며 이것은 인격의 일부분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시백(2000) 또한 성의 개념을 인간생활 속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본질적인 면에서는 비록 약성적이고 동물적인 공통성이 있으나 인간사회의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는 건전하여야 하며 남녀의 역할 또한 편견 없는 자유와 평등의 기준에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의 견해들은 공통적으로 성에 대한 가치, 태도, 행동이 인간의 총체적 인격을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발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성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즉, 사춘기 동안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는 청소년들의 성적 욕구를 자극하게 되는데(Katchadourian, 1990) 이는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성욕을 조절하는가와 어떻게 성을 사회적 관계로 성공적이고 적절하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과제를 부여한다(장필화·조형, 1991).

따라서 청소년기 건강한 성발달이란 인간의 생식 생리, 해부학적 구조 등 생물학적 지식의 습득 외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와 행동을 발달 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기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모습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지식, 태도, 성정체감과 성문화를 정립하는 등 건강한 성발달을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 많은 위협요소를 안고 있다. 즉, 서구 성 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과 향락산업의 번성, 대중매체와 인터넷을 통한 노골화된 성적 표현 등 성과 관련된 국내 사회 환경의 많은 변화는 청소년들의 성 가치관 혼란 및 윤리 도덕성의 혼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김병석, 1998; 함석우, 1999). 또한 성병과 미혼모의 증가, 매매출, 원조 교제, 성폭력 등 청소년과 성에 관련된 심각한 사회 현상들도 현재 한국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실제로 인구 10만 명당 10-19세 청소년의 성범죄 비율은 일본이 6.2명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3배가 넘는 19.9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한국형 사정책연구원, 2000),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 자료집 개발 연구(김상원, 2000)에 따르면, 중학생의 5.8%가 성관계를 한 경험이 있고(남학생 7.5%, 여학생 4.4%), 여자 중학생의 22.3%가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성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뚜렷하고 건전한 목표 하에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올바른 성지식과 가치관을 확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성교육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입장에서는 학생들에게 성에 관한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오히려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성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성 관련 문제는 사회·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한 개입이 필요함과 동시에 학교 성교육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켜왔다.

19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교육현장에서는 수많은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왔으나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학교 성교육에 대한 평가는 다소 부정적이다. 학교 성교육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서 이시백(2000)은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인 성교육, 각급 학교 및 학년별 성교육의 목적이 불분명한 점, 성교육 담당 교사의 전문성 문제, 성교육이 생물학적인 내용으로만 편중되어 있는 점과 더불어 표준화된 성교육 자료의 개발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표준화된 성교육 자료 부족에 대한 비판은 청소년의 성발달을 평가하는 척도의 부재에 있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즉, 지금까지의 청소년 성발달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성교육을 실시한 후 그 실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연구자마다 제각기 개발하거나 제작한 척도를 가지고 성발달을 측정(강정혜, 2002; 계수연, 1999; 박선희, 2004; 박태순, 2001; 성신명, 2001; 이관순, 2004; 이은영, 1997; 이자리, 2000; 주경숙, 2002; 황소진, 2000) 했기 때문에 척도의 타당성이나 신뢰성에 있어 의문점이 제기된다. 외국의 경우에도 특정 성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제한된 내용의 평가 검사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청소년들의 성지식, 태도, 성행동 등을 포함한 종합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개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박영숙·전영민, 2001). 청소년용 성발달 검사로 많이 알려진 검사로 Hendrick와 Hendrick(1987)의 다차원적 성태도 검사(Multidimensional Sexual Attitude Scale)와 Kirby(1984)의 성지식과 태도 검사(Kirby Knowledge Attitude Scale)가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피험자 수와 표본 선정, 부적절한 평가영역 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Devis, Yarber, Bauserman, Schreer & Davis, 1998; Hayes, 1987).

효율적인 성교육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도구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는 Drolet와 Clark(1994)가 성교육의 효과는 청소년들의 성지식, 태도, 기술, 행동, 흥미와 고민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실행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때 극대화 될 수 있다고 제안한 점에 의해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표준화된 성발달 평가 척도는 청소년들의 성지식, 태도, 욕구 및 성행동에 관한 신뢰로운 정보를 제공해 주고, 성교육의 목표를 설정해 줌과 동시에 과학적으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한 개발이 요구된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 요구에 근거해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성발달 평가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발달을 지식, 태도,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양성평등 의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는 Thorne(1966)이 ‘성’의 개념을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중다특성적, 다차원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의한 것과 Hendrick와 Hendrick(1987)이 ‘성’의 개념을 측정할 때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영역과 같은 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문항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도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중·고등학생 시기는 발달단계상 사춘기의 중·후반기로 신체적, 정신적 성숙과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며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성적 발달 영역에 있어서도 독특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및 성상담은 이들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며 그에 대한 평가 도구 또한 차별화가 요구(Miller,

1994; Roper & Scales, 1994; Shaffer, 1999)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도 중·고등학생의 성발달 측정 문항을 구분하여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청소년 성발달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앞서 언급한 성발달 측정도구의 문제점에 기인해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자료를 통한 신뢰롭고 타당한 성발달 측정도구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 성발달 평가와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성발달 평가척도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 선정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각각 2곳을 임의 선정하여 해당학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에 의한 집단조사를 실시하였다. 중학교는 2개 학교 총 62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593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에 자료분석에서 제외시켰고 그 결과 579부의 질문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고등학교는 2개 학교 총 52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509부의 질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경우에 자료분석에서 제외시켰고 그 결과 504부의 질문지가 분석대상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포함된 중·고등학생의 성별, 학년별 분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성별, 학년별 분포

성별	N(%)	학년	N(%)
중 여	남 315(54.50)	1학년	292(50.52)
		2학년	190(32.87)
	263(45.50)	3학년	96(16.61)
고 여	남 171(34.00)	1학년	74(14.68)
		2학년	182(36.11)
	332(66.00)	3학년	247(49.21)

2. 연구절차

본 연구는 다음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척도를 구성하였다.

1) 관련문헌과 도구 분석

중·고등학생 대상 성발달과 관련된 개념 정의 및 이론적 논의들을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교육인적자원부, 2001)와 관련 연구(강정혜, 2002; 계수연, 1999; 박선희, 2004; 박태순, 2001; 성신명, 2001; 이관순, 2004; 이은영, 1997; 이자리, 2000; 주경숙, 2002; 황소진, 2000; Hendrick & Hendrick, 1987)를 통해 검토하였다.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들을 검토한 결과 청소년 성발달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척도는 5개 하위 영역, 즉 성지식, 성태도,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양성평등의식의 5개 영역을 추출하였다. 이는 Thorne(1966)이 ‘성’이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결정되는 중다특성적, 다차원적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한 것과, Hendrick와 Hendrick(1987)이 ‘성’의 개념을 측정할 때는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영역과 같은 성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의 문항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근거해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교육인적자원부, 2001)의 교육내용을 기준으로 하위영역을 구분한 것이다. 문항제작

은 각 하위영역별 특성을 가장 잘 측정한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추출하거나 개발하는 과정을 거쳐 중학생용 성발달 평가척도 문항 74문항·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척도 81문항을 1차로 구성하였다.

1차 예비 제작된 청소년 성발달 평가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지식은 성의 각 영역에 대해 실제 알고 있는 정도와 스스로 알고 있다거나 느끼는 정도를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는데 남녀 신체구조와 변화, 생식기 위생, 남녀 호르몬의 역할과 2차 성징의 발현, 임신과 출산, 인공 임신중절, 성병, 에이즈 및 이상 성행동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었다. 성태도는 성과 관련된 가치나 태도에 있어 성숙 혹은 미성숙하거나 개방적 혹은 보수적 방향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즉, 이성과의 신체적 접촉, 미혼 성관계, 피임, 낙태, 매매춘, 자위, 이상 성행동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성적 의사결정은 청소년들이 이성교제나 이를 통한 성행동 및 성적 행동의 자기 결정권, 성관련 행동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자기주장의 내용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성폭력 인식 및 대처는 성폭력의 의미, 성폭력의 유형, 발생원인 및 예방책 등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의식은 양성평등에 입각하여 바람직한 성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관한 측정으로 성차별과 성역할 고정관념, 남녀의 협력과 조화에 관한 개인의 의식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2) 내용타당도 평정

1차 예비 제작된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의 이론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9인으로 이루어진 전문가 집단(성상담 전문가, 청소년 상담

원, 관련분야 대학교수, 성교육 담당 교사, 민간단체 여성상담원 등)에게 내용타당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평가방법은 제작된 척도의 각 문항들이 중·고등학생의 성발달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발달단계에 맞게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성발달의 5개 하위영역을 대표하는 문항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의 2차원으로 이루어졌다.

9인의 전문가들은 척도의 각 문항들에 대해 5점 Likert 방식의 평가(1점 : 매우 적절치 못함~5점 : 매우 적절함)를 하였고 문항을 삭제하는 기준으로 전문가 9인 중 3인 이상이 문항의 적절성에 대해 중간(3점) 이하로 평가한 문항은 삭제키로 하였다. 그 결과 성지식, 성태도,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양성평등의식의 5개 영역에서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 받은 문항들이 선별되었고 중학생용 성발달 평가 척도는 3개 문항을 제외한 총 71개 문항(성지식 영역15개 문항, 성태도 영역 16개 문항, 성적 의사결정 영역 13개 문항,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영역 13개 문항, 양성평등의식 영역 14개 문항)과 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 척도는 5개 문항을 제외한 총 76개 문항(성지식 영역 15개 문항, 성태도 영역 16개 문항, 성적 의사결정 영역 14개 문항,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영역 15개 문항, 양성평등의식 영역 16개 문항)으로 예비조사 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응답방식은 응답자들이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방식(1점 : 전혀 그렇지 않다~5점 : 매우 그렇다)으로 보고하도록 구성하였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 척도 모두 성태도를 제외한 4개 하위영역에서 부정적 문항에 대해서는 역채점 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영역의 발달이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성태도 영역은 단일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항들이 아닌 복합적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비조사를 통해 자료수집 후 요인분석을 통해 그 구성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로 하였다.

3) 예비조사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예비조사는 2004년 7월에 실시되었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이 솔직한 응답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대한 협조를 부탁하였고 또한 학생들에게 안내문을 읽어보게 하여 간단히 조사의 목적과 응답방식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질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학교급 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중학교의 경우 30분, 고등학교의 경우 25분 가량이 질문지 응답에 소요되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먼저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성발달 평가 영역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으로는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고유치, scree 검사, 누적변량 비율 및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인 수를 결정하였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 직교회전 방식 중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실시한 후 문항분석을 통하여 각 요인별로 요인부하량이 .30 미만인 문항을 우선적으로 삭제하였다. 삭제된 문항을 제외시키고 각 영역별 남은 문항들을 대상으로 2차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요인구조를 해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구성된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

항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문항 제거시 신뢰도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별별도를 검토하였다. 요인별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 25%의 집단을 구분한 다음 문항별 반응빈도가 상·하 집단에 따라 변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χ^2 값과 Cramer's V를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타당도

1) 중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 결과

중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 하위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지식 영역의 15개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으나 scree 검사 결과나 해석 가능성은 고려해 보았을 때 2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지식 영역의 2개 문항, 즉 ‘남자는 여자보다 생리적으로 성충동이 강하다’ ‘자위행위는 신체적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욕 해소 방법의 하나이다’ 문항은 추출된 2개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문항을 제외한 다음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최종적으로 문항을 특정요인에 포함시키는 기준으로는 요인부하량 .30 이상과 해석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

〈표 2〉 성지식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a6.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안다.		.77	-.00
a1. 월경의 의미에 대해 잘 안다.		.74	.01
a5. 사정, 풍정에 대해 잘 안다.		.72	.18
a9. 2차 성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70	.09
a7.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안다.		.68	-.16
a4. 인공 임신 중절(낙태)에 대해 잘 안다.		.67	.08
a8. 성병, AIDS에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 잘 안다.		.62	-.19
a10. 음란물이 무엇인지 잘 안다.		.62	-.06
a2. 발기현상은 야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46	.28
a14.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감염된다.(R)		.03	.64
a11. 성기가 작은 남성은 정상적인 성관계를 가질 수 없다.(R)		.06	.62
a12. 남자의 성욕은 충동적이고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다.(R)		-.21	.59
a15. 동성애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R)		.07	.50
고유치		4.09	1.59
설명변량		31.46	12.23
누적변량		43.69	

주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요인 I : 성지식 자신감

요인 II : 실제 성지식

에 대한 명명은 요인 I : 성지식 자신감, 요인 II : 실제 성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성지식 영역 2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43.6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태도 영역의 16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ee 검사 결과 3개 요인 이후에 고유치 하락이 심하게 나타나 요인을 3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태도 영역의 1개 문항, 즉 ‘인공 임신중절(낙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문항은 추출된 3개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문항을 제외한 다음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은 요인 I : 성적 자연스러움, 요인 II : 미혼 성관계, 요인 III : 성 수

치심으로 구분하였다. 성태도 영역 3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41.72%였다.

중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성적 의사결정 영역에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 의사결정 영역 13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ee 검사 결과와 해석 가능성 검토한 결과 2개 요인으로 구성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 의사결정 영역의 1개 문항, 즉 ‘내가 고백했을 때, 상대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해도 안타깝긴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문항은 추출된 2개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의 문항을 제외한 다음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최종적

〈표 3〉 성태도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b11.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74	.23	-.10	
b9.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65	-.09	.05	
b14. 이성 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63	-.11	-.01	
b7. 성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56	.22	.00	
b6. 성관계는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는데 필요하다.	.49	.43	-.08	
b12. 나는 여자 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좋다.	.42	-.34	.16	
b8. 매매춘 행위는 필요하다.	.00	.71	.10	
b3. 나는 애정이 없이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06	.70	-.11	
b1. 남녀 모두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R)	-.10	.51	-.44	
b2.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	.43	.44	-.12	
b10.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13	.41	.38	
b5. 경제적으로나 양육하는 면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낙태를 해도 된다.	.12	.35	.09	
b13.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는 죄책감이 든다.	-.06	-.01	.68	
b15. 성장에 따른 몸의 여러 가지 변화가 싫고 불안하다.	-.06	.16	.66	
b16. 자위는 부끄러운 행위다.	.01	-.12	.64	
고유치	2.33	2.20	1.73	
설명변량	15.53	14.66	11.53	
누적변량			41.72	

주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 표시는 역체점 문항임

요인 I : 성적 자연스러움

요인 II : 미혼 성관계

요인 III : 성 수치심

으로 문항을 특정요인에 포함시키는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
는 요인부하량 .30 이상과 해석가능성을 동시에 은 요인 I : 이성관계 의사결정, 요인 II : 성 유

〈표 4〉 성적 의사결정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c3. 이성친구에게 화 났을 때, 고마울 때 등의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	.75	-.08	
c4. 이성친구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59	.22	
c8. 내 감정과 느낌이 소중한 만큼 상대의 상태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58	.32	
c5. 나는 원하지만 상대가 싫다고 하면, 여러분 반복해서 강요하지 않고 상대의 의사를 존중한다.	.57	.32	
c2. 나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고민에 대해 상대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52	-.22	
c6. 나는 여전히 좋아하는데, 상대는 좋아하지 않는다면 헤어지려 할 때, 억지로 붙잡지 않는다.	.48	.29	
c1. 이성교제시 좋아하다가 싫어지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48	.18	
c10. 사귀고 싶은 이성이 생길 때, 상대에게 제안해 볼 수 있다.	.40	-.29	
c15. 원조교제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다.	.11	.73	
c12. 친구들이 불법음란 비디오를 보자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다.	.09	.67	
c9. 합의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제안을 내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거절 할 수 있다.	.18	.63	
c13. 상대방의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	.16	.52	
고유치	2.53	2.18	
설명변량	21.08	18.16	
누적변량		39.24	

주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요인 I : 이성관계 의사결정

요인 II : 성 유혹 거부 의사결정

〈표 5〉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d2.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동을 말한다.	.76	-.08	
d3. 수업중에 성차별적, 여성 비하적인 말을 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72	-.14	
d6. 남자들도 여자들에 의해 성적으로 회통을 당할 수 있다.	.72	-.06	
d1.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	.62	.16	
d12.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는다.	.44	-.34	
d8. 성폭력을 당한 것은 수치스러우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R)	.17	.62	
d11. 강간을 당하는 것은 순결을 잃는 것이다.(R)	-.10	.62	
d13.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R)	-.07	.62	
d10. 성폭력을 당했다면 빨리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R)	-.24	.47	
d5. 성폭력의 원인은 남자의 절제할 수 없는 본능 욕구 때문이다.(R)	-.05	.37	
d7.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R)	-.00	.32	
고유치	2.30	1.77	
설명변량	20.90	16.09	
누적변량	36.99		

주 : 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요인 I : 성폭력 인식

요인 II : 성폭력 수치심

혹 거부 의사결정으로 구분하였다. 성적 의사결정 영역 2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39.24% 였다.

다음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의 13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ee 검사시 2개 요인 이후에 고유치 하락이 심하게 나타나 요인을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의 2개 문항, 즉 ‘여자들의 야한 웃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 ‘스토킹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문항은 추출된 2개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문항을 제외한 다음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은 요인 I : 성폭력 인식, 요인II : 성폭력 수치심으로 구분하였다.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 2개 하

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36.99%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의식 영역의 14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ee 검사 결과 1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일요인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양성평등 의식 영역은 1개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단일요인으로 지정했을 때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6>에 제시된 것처럼 전체 문항이 양성평등 의식 단일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30 이상 공통적으로 적재됨을 보여준다. 양성평등 의식 단일요인이 전체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35% 였다.

2) 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 결과

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구성타당도를 확인하고자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각 하위

〈표 6〉 양성 평등의식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e9. 남학생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여학생은 암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R)	.74	
e3. 여자는 전문가보다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R)	.73	
e1. 여자는 집안살림을,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	.70	
e2.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할 때 책임자는 남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	.68	
e12.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교육목표는 달라야 한다.(R)	.67	
e10. 자녀가 잘못됐을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R)	.63	
e4.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다.(R)	.62	
e15. 여성이 성적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숙하지 못한다.(R)	.60	
e13. 혼전 성관계는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는 안된다.(R)	.57	
e14. 여자는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R)	.53	
e8.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고등교육(대학교육)을 더 필요로 한다.(R)	.52	
e7.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42	
e6.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똑같이 나누어 해야 한다.	.35	
e5.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일을 할 경우 승진기회 등도 같아야 한다.	.31	
고유치	4.90	
설명변량	35.00	
누적변량	35.00	

주 :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영역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지식 영역의 15개 문항들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

시한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으나 scree 검사 결과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표 7〉 성지식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a6. 수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안다.	.82	.05	
a5. 사정, 봉정에 대해 잘 안다.	.76	.20	
a4. 인공 임신 중절(낙태)에 대해 잘 안다.	.74	-.08	
a7. 태아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잘 안다.	.73	.04	
a8. 성병, AIDS에 어떻게 감염되는지에 대해 잘 안다.	.58	.21	
a15. 질외사정을 한 경우도 임신이 될 수 있다.	.00	.71	
a13. 자위행위는 신체적인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욕 해소 방법 중 하나이다.	.12	.70	
a1. 발기현상은 야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06	.70	
a2. 여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다.	.17	.68	
a14. 콘돔은 피임과 성병예방에 효과적이다.	.20	.63	
a9. 음란물이 무엇인지 잘 안다.	.42	.49	
a10. 일단 발기되면 꼭 사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병이 된다.(R)	-.04	.34	
고유치	2.92	2.81	
설명변량	24.33	23.41	
누적변량	47.74		

주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요인 I : 성지식 자신감

요인 II : 실제 성지식

〈표 8〉 성태도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b11.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접촉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78	-.10	.06	.18	
b9. 성관계는 남녀가 사랑을 느낄 때 이뤄지는 것이다.	.64	.42	-.07	-.02	
b15. 이성친구와 함께 어울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64	-.24	.10	-.23	
b6. 성관계는 두 사람의 사이를 좋게 하는데 필요하다.	.58	-.21	.02	.34	
b7. 성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58	-.22	.20	.06	
b12. 나는 여자 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좋다.	.35	-.23	-.23	.07	
b14. 성적인 욕구가 생길 때는 죄책감이 든다.	-.13	.75	.00	.06	
b13. 음란물은 성적 흥분을 유발하므로 보지 않는 것이 좋다.	-.18	.66	-.09	-.23	
b1. 남녀 모두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18	.59	-.25	-.25	
b16. 인공임신 중절(낙태)은 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13	-.04	.78	.19	
b5. 경제적으로나 양육하는 면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낙태를 해도 된다.	.12	-.04	.77	.11	
b4. 인공 임신중절(낙태)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R)	-.09	-.15	.73	-.07	
b10.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09	.12	-.03	.72	
b8. 매매춘 행위는 필요하다.	.15	-.24	.23	.65	
b3. 나는 애정이 없이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	.17	-.45	.07	.63	
b2. 사랑한다면 성관계를 해도 된다.	.45	-.26	.12	.50	
고유치		2.63	2.10	1.98	1.97
설명변량		16.44	13.13	12.38	12.31
누적변량					54.26

주 : 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요인 I : 성적 자연스러움

요인 II : 성 수치심

요인 III : 낙태

요인 IV : 미혼 성관계

보았을 때 2개 요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성지식 영역의 3개 문항, 즉 ‘남자는 여자보다 생리적으로 성충동이 강하다’ ‘성병은 성관계를 통해서만 감염된다’ ‘동성애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문항들은 추출된 2개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 문항을 제외한 다음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다. 최종적으로 문항을 특정요인에 포함시키는 기준으로는 요인부하량 .30 이상과 해석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은 요인 I : 성지식 자신

감, 요인 II : 실제 성지식으로 구분하였다. 성지식 영역 2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47.74% 였다.

다음으로 성태도 영역의 16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4개로 나타났고 스크리 검사 결과도 4개의 요인구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수를 4개로 한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이 추출된 요인 중 1개 이상에서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제외되는 문항없이 최종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표 8>에 제시한 것처럼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은 요인 I : 성적 자연스러움, 요인 II : 성 수치심, 요인 III : 낙태, 요인 IV : 미혼 성관계로 구분하였다. 성태도 영

〈표 9〉 성적 의사결정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c4. 이성친구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부당함'을 이야기 할 수 있다.	.71	.02	
c10. 합의된 신체적인 접촉에 대한 제안이라도 내가 원하지 않을 경우엔 거절할 수 있다.	.63	.07	
c14. 상대방의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에 대해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	.63	.05	
c13. 상대가 술에 취해서 정신이 없을 때를 기회로 내가 평소에 원했던 접촉을 시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61	-.10	
c3. 이성친구에게 화났을 때, 고마울 때 나의 감정표현을 할 수 있다.	.51	.26	
c1. 이성교제시 좋아하다가 싫어지는 감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48	.20	
c16. 원조교제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거절할 수 있다.	.38	-.30	
c5. 이성친구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어 감정을 감추는 경우가 있다.(R)	.36	-.28	
c8.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이성과 숙박여행을 함께 할 수 있다.	-.03	.71	
c2. 나는 성적욕망이나 성적고민에 대해 상대에게 이야기 할 수 있다.	.08	.61	
c11. 사귀고 싶은 이성이 나타나면, 상대에게 제안해 볼 수 있다.	.12	.59	
c7. 성적욕망이 생기면 함께 나눌 상대가 없어도 스스로 해소할 수 있다.	-.02	.54	
c12. 내가 고백했을 때, 상대가 나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말해도 안타깝긴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16	.41	
c15. 원치 않더라도 사랑하는 이성친구가 키스나 포옹을 요구한다면 할 수 있다.(R)	.41	-.58	
고유치	2.66	2.31	
설명변량	19.00	16.50	
누적변량	35.50		

주 : 친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요인 I : 성적 자기주장

요인 II : 이성관계 자율성

역 4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54.26%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성적 의사 결정 영역에서의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성적 의사결정 영역 14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ee 검사 결과와 해석 가능성성을 검토한 결과 2개 요인으로 구성함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요인수를 2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적 의사결정 영역의 모든 문항이 추출된 요인에서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여 제외되는 문항 없

이 최종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표 9> 참조). 최종 요인구조 확인 결과 중학생과 달리 고등학생의 경우 성적 의사결정 영역의 문항들이 개념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 2개의 요인으로 혼재되어 나타났다. 즉, 중학생의 경우 이성관계

에서의 자기결정이나 자율성을 평가하는 요인과 성일탈, 성유혹에서의 자기 통제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인으로 뚜렷이 구분되어 나타났으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명확하지 않는 2개의 요인으로 나타나 이를 해석하고 요인명을 제시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자들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은 요인부하량이 높게 나타난 문항을 중심으로 해석하였고 그 결과 요인 I : 성적 자기주장, 요인 II : 이성관계 자율성으로 구분하였다. 성적 의사결정 영역 2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35.50% 였다.

다음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의 15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4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ee 검사와 해석 가능성성을 고려해 봤을 때 문항 수에 비해 요인이 너무 많은 것으로 판

〈표 10〉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	항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d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과 행동이 성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R)	.83	-.20	.05	
d7. 여성의 심한 노출은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R)	.82	-.19	.05	
d11. 스토킹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서 일어나는 것이다.(R)	.52	.19	.07	
d12. 성폭력을 당했다면 빨리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R)	.48	.23	.40	
d8. 여자가 “안 된다”고 한 말은 “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된다.(R)	.42	.38	-.04	
d2. 성폭력이란 성적으로 굴욕적이고 불쾌한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동을 말한다.	-.05	.67	.07	
d3. 수업 중에 성차별적, 여성 비하적인 말을 하는 것도 성희롱이다.	.06	.65	.04	
d6. 남자들도 여자들에 의해 성적으로 회통을 당할 수 있다.	-.17	.60	.13	
d14. 성폭력을 당했다면 24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는다.	.15	.54	-.24	
d13. 강간을 당하는 것은 순결을 잃는 것이다.(R)	.26	.02	.70	
d15.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R)	-.07	-.28	.65	
d1.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	-.04	.25	.47	
d10. 성폭력은 당한 것은 수치스러우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R)	.42	.32	.46	
d5. 성폭력의 원인은 남자의 철제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이다.(R)	.36	-.12	.37	
고유치	2.49	2.10	1.72	
설명변량	17.79	15.00	12.29	
누적변량			45.08	

주 : 전하게 표시된 문항이 타당도, 신뢰도, 문항분석 결과 최종 요인에 포함된 문항들임.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요인 I : 성폭력 오인

요인 II : 성폭력 경계심

요인 III : 성폭력 수치심

단되어 요인을 3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의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은 불가능하다’ 문항은 추출된 3개 요인 모두에서 요인부하량이 .3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의 문항을 제외한 후 다시 주성분 분석과 varimax 방식의 요인회전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한 바와 같다. 중학생의 경우와 비교해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의 성폭력 인식 요인으로 묶었던 문항들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좀더 세분화 되어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 확인된 요인구조에 대한 명명은 요인 I : 성폭력 오인, 요인 II : 성폭력 경계심, 요인 III : 성폭력 수치심으로 구분하였다.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 3개 하위요인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량은 45.08%였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의식 영역의 16개 문항들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고유치 1 이상인 요인은 3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scree 검사 결과 1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단일요인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양성평등 의식 영역은 1개 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단일요인으로 지정했을 때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은 <표 1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1>에 제시된 것처럼 전체 문항이 양성평등 의식 단일요인에 대한 요인부하량이 .30 이상 공통적으로 적재됨을 보여준다. 양성평등 의식 단일요인이 전체 변량을 설명하는 정도는 42.13%였다.

〈표 11〉 양성 평등 의식 영역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I
e3. 여자는 전문가보다 현모양처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R)	.79
e9. 남학생은 적극적이고 활발하고 여학생은 얌전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R)	.77
e1. 여자는 집안살림을, 남자는 바깥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	.74
e14. 혼전 성관계는 남자는 괜찮지만 여자는 안 된다.(R)	.72
e4. 여자에게 적합한 직업과 남자에게 적합한 직업이 따로 있다.(R)	.72
e13. 남학생과 여학생을 위한 교육목표는 달라야 한다.(R)	.70
e2.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할 때 책임자는 남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R)	.66
e11. 자녀가 잘못됐을 경우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책임이 크다.(R)	.63
e16. 여자는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R)	.61
e7.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61
e15. 남자는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야 한다.(R)	.59
e10. 여자가 너무 당당하면, 남자들이 기가 죽는다.(R)	.59
e8.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고등교육(대학교육)을 더 필요로 한다.(R)	.58
e6. 남편과 아내는 집안일을 똑같이 나누어 해야 한다.	.57
e17. 여성이 성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정숙하지 못하다.(R)	.56
e5. 남자와 여자가 같은 일을 할 경우 승진기회 등도 같아야 한다.	.42
고유치	6.74
설명변량	42.13
누적변량	42.13

주 : (R) 표시는 역채점 문항임.

2. 신뢰도

요인분석을 바탕으로 구성된 청소년 성발달 평가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합도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신뢰도 분석시 개별문항과 요인 총점간의 상관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문항과 문항 제거시 신뢰도 상승을 가져오는 문항은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 중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

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나는 여자 또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좋다’ ‘사귀고 싶은 이성이 생길 때, 상대에게 제안해 볼 수 있다’ ‘성폭력의 원인은 남자의 절제할 수 없는 본능적인 욕구 때문이다’ ‘피해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성폭력을 불가능하다’ 문항들은 신뢰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외되었다. 이를 문항을 제외한 중학교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경우 ‘일단 발기가 되면 꼭 사정해야 한다.

〈표 12〉 중학생용 성발달 평가 척도의 신뢰도

성지식 영역		성태도 영역		성적 의사 결정 영역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		양성평등 의식 영역	
성지식 자신감	실제 성지식	성적 자연스러움	미혼 성관계	성 수치심	이성관계 의사결정	성유혹 의사결정	거부 의사결정	성폭력 인식	성폭력 수치심
.86	.64	.73	.64	.58	.74	.72	.77	.64	.87

〈표 13〉 고등학생용 성발달 평가 척도의 신뢰도

성지식 영역			상태도 영역			성적 의사 결정 영역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			양성평등 의식 영역	
성지식	실제	성적	성	낙태	미혼	성적	이성관계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	양성평등	
자신감	성지식	자연스러움	수치심	성관계	성관계	자기주장	자율성	오인	경계심	수치심	의식	
.81	.80	.72	.66	.73	.74	.72	.62	.73	.61	.58	.92	

그렇지 않으면 병이 된다'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성폭력은 잘 아는 사이에서 일어난다' 문항들이 신

뢰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외되었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고등학교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표 13〉에 제시하였다.

〈표 14〉 중학생 성발달 척도 문항별도 검증

하위영역	문항번호	χ^2*	Cramer V	하위영역	문항번호	χ^2**	Cramer V
성지식 영역	a6	174.75	.81	성적 의사 결정 영역	c6	136.71	.65
	a1	179.46	.81		c1	143.94	.67
	a5	192.79	.85		c2	69.18	.46
	a9	146.96	.74		c12	179.39	.83
	a7	141.89	.73		c15	208.28	.90
	a4	157.02	.76		c9	166.52	.80
	a8	158.95	.77		c13	160.22	.79
	a10	121.62	.67		d2	163.40	.82
	a2	94.33	.61		d3	180.90	.87
	a14	137.02	.75		d6	159.30	.82
	a11	90.81	.62		d1	168.47	.83
	a12	118.78	.71		d12	106.65	.67
	a15	189.17	.88		d11	105.23	.78
	b11	186.79	.84		d8	107.43	.79
	b9	137.01	.72		d13	110.46	.79
성태도 영역	b14	108.29	.64		d10	125.94	.85
	b7	123.15	.68		e1	179.27	.80
	b6	120.16	.67		e2	187.14	.82
	b2	119.25	.67		e3	183.70	.82
	b8	146.76	.84		e4	174.98	.79
	b3	158.82	.88		e5	147.46	.73
	b1	152.81	.86		e6	87.67	.56
	b5	161.40	.88		e7	125.16	.67
	b15	174.49	.80		e8	100.64	.61
	b16	192.71	.84		e9	220.46	.90
	b13	176.15	.81		e10	188.59	.83
	c3	154.70	.69		e12	177.29	.80
	c5	145.63	.67		e13	146.28	.74
	c8	157.04	.70		e14	116.23	.65
	c4	139.97	.66		e15	148.75	.74

*모든 문항에 대한 χ^2 값의 유의확률 $p<.001$

3. 문항양호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를 구성하는 각 하위요인의 문항양호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변별도를 검토하였다. 요인별 총점을 기준으로 상·하

25%의 집단을 구분한 다음 문항별 반응빈도가 상·하 집단에 따라 변별이 가능한지를 분석하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χ^2 값과 Cramer's V를 산출하였다. <표 14> <표 15>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하위요인에 속한 문항들의 χ^2 값이 유의하

<표 15> 고등학생 성발달 척도 문항변별도 검증 결과

하위영역	문항번호	χ^2*	Cramer V	하위영역	문항번호	χ^2**	Cramer V
성지식 영역	a6	171.04	.85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	c8	144.64	.83
	a5	163.12	.84		c2	105.41	.71
	a4	186.75	.89		c11	120.45	.76
	a7	173.88	.86		c7	98.09	.70
	a8	151.30	.80		c12	94.77	.68
	a15	161.37	.90		d4	48.15	.31
	a1	156.99	.89		d7	80.11	.40
	a13	129.99	.81		d11	98.89	.45
	a2	123.07	.79		d12	145.58	.54
	a14	137.38	.83		d8	90.89	.43
성태도 영역	a9	111.31	.75		d10	139.09	.53
	b11	182.14	.87		d2	145.39	.86
	b9	92.09	.61		d3	159.41	.90
	b15	130.87	.73		d6	93.95	.69
	b6	146.13	.77		d14	122.31	.79
	b7	152.57	.79		d13	147.66	.91
	b12	104.55	.65		d15	87.18	.70
	b14	127.98	.91		d10	127.72	.85
	b13	145.94	.96		d5	88.68	.70
	b1	151.33	.97		e1	161.58	.84
성적 의사 결정 영역	b16	141.89	.95		e2	157.56	.83
	b5	148.61	.97		e3	182.81	.90
	b4	152.07	.99		e4	168.84	.86
	b8	207.93	.89		e5	124.32	.74
	b3	239.93	.95		e6	120.11	.73
	b2	209.26	.89		e7	139.10	.78
	c4	128.60	.75		e8	141.82	.79
	c14	122.10	.73		e9	178.34	.89
	c10	99.56	.67		e10	130.52	.76
	c13	120.58	.73		e11	145.90	.80
의식 영역	c3	54.16	.49		e13	162.79	.85
	c1	57.28	.50		e14	172.98	.87
	c16	85.56	.61		e15	149.05	.81
	c5	61.67	.52		e16	149.41	.81
	c15	114.57	.71		e17	103.88	.68

*모든 문항에 대한 χ^2 값의 유의확률 $p<.001$

게 나타나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성발달 하위요인의 상·하 집단을 의미있게 변별해 줌으로써 문항양호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발달 평가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로서 이론적 검토와 경험적 자료를 통한 신뢰롭고 타당한 성발달 측정도구의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으로 예비 제작된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의 내용타당도와 요인구조를 확인하고 또한 신뢰도와 문항양호도를 검토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는 국내외 청소년의 성 발달 관련 문헌과 도구 분석, 전문가 집단에 의한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쳐 성지식, 성태도, 성적 의사결정,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대처, 양성평등의식의 5개 영역으로 하위 영역을 구성하였다. 중학생 579명과 고등학생 504명이 응답한 자료를 토대로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 척도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하위 영역별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성지식 영역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성지식 자신감과 실제 성지식의 2개 하위요인으로 나타났다. 성태도 영역에서는 중학생이 성적 자연스러움, 미혼 성관계, 성 수치심의 3개 하위요인,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성적 자연스러움과 성 수치심 요인이 중학생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그 외 문항들은 좀더 세분화되어 낙태 요인과 미혼 성관계로 구분된 총 4개 하위 요인구조를 나타내었다. 성적 의사결정 영역에서는 중학생의 경-

우 이성관계 의사결정과 성 유혹 거부 의사결정의 2개 하위 요인구조로 문항 내용상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과 마찬가지로 2개 하위 요인구조로 구분할 수 있었으나 이론적 구인과는 달리 문항 내용들이 명확히 분류되지 않아 특정 하위요인으로 명명함에 있어 제한점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추후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 개발에 있어 재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다음 성폭력 인식 및 대처 영역에서는 중학생의 경우 성폭력 인식과 성폭력 수치심의 2개 하위요인이 확인되었다. 고등학생의 경우 성폭력 오인, 성폭력 경계심, 성폭력 수치심의 3개 하위 요인구조로 구분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의식 영역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단일요인으로 구성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양성평등 의식의 요인구조 분석 결과 모든 문항들이 단일요인에 대해 .30 이상의 요인부하량을 보인 것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한편 요인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요인구조를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이 좀더 분화된 요인구조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는 성교육 지침(안창선, 김현옥, 1991; Skonie-Hardin, 1994)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발달적 차이를 고려해 성교육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 연구결과는 그러한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되, 문항 제거시 신뢰도의 변화도 함께 고려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문항 중 5개 문항이 제외되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3개 문항이 제외되었다. 이들 문항을 제외한 청-

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신뢰도는 중학생의 경우 .58-.87의 범위를 보였고 고등학생의 경우 .61-.92의 범위를 보여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중학생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성 수치심 요인은 신뢰도 .58로서 문항수가 작은 것을 고려하자면 심각하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추후 문항 개발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 연구로서 마지막 작업은 문항변별도에 의한 문항양호도 분석을 통해 이루어 졌다. 문항변별도 검증 결과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 척도의 모든 문항들의 χ^2 값이 유의하게 나타나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를 구성하는 문항들은 성 발달 하위요인별 상·하 집단을 의미있게 변별해 주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예비 척도 개발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의 내용타당도 및 구성 타당도를 보기 위한 요인구조와 신뢰도, 문항양호도를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되나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타당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준거 관련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지 않았다. 둘째, 신뢰도에 있어 재검사 신뢰도가 제시되지 않아 시간의 경과에 따른 행동변화를 평가(허계형, 2001)하는데 있어 척도의 신뢰성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다. 셋째, 연구대상과 관련한 부분으로 본 연구는 중학생 579명과 고등학생 504명의 자료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성발달 평가 예비척도의 요인구조와 신뢰도를 확인하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성별 분포가 여자 고등학생에 편중(전체 고등학생의 66%)되어 있어 표본선정에서의 제한점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기여점은 표준화된 성발달 측정도구에 대한 현실적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추후 청소년 성발달 평가 척도 개발 연구에서는 성발달 평가 영역의 이론적 구조 정립과 하위영역별 구성요인의 재확인 및 그에 따른 문항의 타당성을 보완하는 작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정혜(2002). 경도 정신지체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효과. 단국대 특수교육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계수연(1999). 성교육 실시에 따른 성지식, 성태도 변화 연구 : 1학년 여중생을 대상으로.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교육인적자원부(2001). 함께 풀어가는 성 이야기. 교육부 성교육 지침서.
- 김병석(1998). PC통신상담에 대한 설문조사. 서울 : 청소년대학의 광장.
- 김상원(2000). 중학생의 성의식 조사 및 성교육 자료집 개발연구.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
- 박선희(2004).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 교육대학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숙·전영민(2001). 청소년 성심리검사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0(4), 775-793.
- 박태순(2001). REBT 모형으로한 성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신명(2001).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성 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명옥(2003). 학교성교육. 성교육 업무담당자 및 교사 세미나 개최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 안창선·김현옥(1991). 학교성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이관순(2004). 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의 성관련 지식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전남 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시백(2000). 학교성교육 활성화 방안. 성교육세미나 자료. 교육부.
- 이은영(1997). 성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자리(2000). 성교육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필화·조 형(1991). 한국의 성문화: 남성 성문화를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8.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
- 주경숙(2002). 집단상담식 성교육 프로그램이 보호시설 청소년의 성의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인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성의 상업화가 성의식 및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함석우(1999).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성윤리에 미치는 영향. 감리교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계형(2001). 2, 3세 유아의 사회정서 문제 조기 발견: ASQ : SE 선별 평가서의 표준화 연구. 아동학회지, 21(4), 123-142.
- 횡소진(2000). 정신지체인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경성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Devis, C. M., Yarber, W. L., Bauserman, R., Schreer, G., & Davis, S. L.(1998). *Handbook of sexuality-related measures*. Thousand Oaks : SAGE Publications Inc.
- Drolet, J. C., & Clark, K.(1994). *The sexuality education challenge*. Santa Cruz : ETR Association.
- Hayes, C. D.(Ed.)(1987). *Risking the Future : Adolescent sexuality, Pregnancy and childbearing(Vol. 1)*. Washington, DC : National Academy Press.
- Hendrick, S., & Hendrick, C.(1987). Multidimensionality of sexual attitudes. *Journal of Sex Research*, 23, 502-526.
- Katchadourian, H.(1990). Sexuality. In S. Feldman and G. Elliott(Ed.). *At the Threshold :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Kirby, D.(1984). *Sexuality education : A handbook for the evaluation of program*. Santa Cruz, CA : Network Publication.
- Miller, D. A.(1994). Sexuality education in the post-secondary classroom. In J. Drolet, & K. Clark, K. *The sexuality education challenge*. Santa Cruz : ETR Association.
- Roper, M. R., & Scales, P. C.(1994). Sexuality education in the high school classroom. In J. Drolet, & K. Clark, K. *The sexuality education challenge*. Santa Cruz : ETR Association.
- Shaffer, D. R.(1999). *Developmental psychology*. Pacific Grove : Brooks/Cole Pub Com.
- Skonie-Hardin.(1994). Sexuality education in the middle and junior high school classroom. In J. C. Drolet, & K. Clark, *The sexuality education challenge*. Santa Cruz : ETR Association.
- Thorne, F. C.(1966). A factorial study of sexuality in adult male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 378-386.

2004년 10월 31일 투고 : 2005년 1월 2일 채택